

2026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모 두 말 씀

2026. 6. 16. (화) 15: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월)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출범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제화된 이후,
열 번의 회의를 통해
금융교육 운영체계 정비,
학교 금융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교육 대상과 전달 방식을 넓히며,
국민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금융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교육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금융투자교육 강화의 필요성

새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강하고 신뢰받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 주주가치 보호,
부실·저성과 기업 퇴출 가속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접하는 금융투자상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자산형성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위험이 있고,
상품구조도 복잡합니다.

또한,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고위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투자자들이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리딩방, 허위 투자정보, 사칭 광고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잘 알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장기·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할 때,
자본시장은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그 성과는 다시 국민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 방안

이에 금융위원회는 잘 ‘알고투자’*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투자판단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알기 쉬운 교육, **고**르게 확산되는 교육기화기반, **투**자판단 역량강화, **자**기보호 역량강화

① 첫째, 누구나 알기 쉬운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투자교육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 청년, 직장인, 고령층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과
고령층을 위한 보다 쉬운 교육 콘텐츠 등을 확충하는 한편,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둘째, 금융투자교육 기회와 기반을 고르게 넓히겠습니다.

금융투자교육은

수도권 위주의 교육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금융업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교육의 기반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 또한 비수도권 지역까지 고르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참여율이 낮은 금융투자업권의
1사1교 금융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 '25년중 1사1교 금융교육의 업권별 교육횟수 비중(국내회사 기준): 은행(47%),
보험(30%), 카드사(12%), 증권사(6%) 등

수도권 위주의 투자동아리 연계 교육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투자 앰배서더(홍보대사)'를 신설하여

캠퍼스 내 올바른 투자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금융투자 방문교육을 확대하여

군장병 대상 자산관리 및 투자기초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셋째, 투자판단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금융투자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상품을 비교하고, 위험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실용금융강좌를 개선하여
금융투자 부문을 확대 편성하고,
'K-MOOC*'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188개 기관(주요 대학교, 금감원·KOICA 등 공공기관)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 중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주식, ETF, 연금저축 등
실전 중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인에게는
사내연수,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연금 활용법과 장기·분산투자 원칙 등
실질적인 자산형성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역량은
수익 기회를 찾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잉부채, 불법 투자권유,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중요한 투자역량입니다.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층에는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에는 디지털금융 활용, 노후자산관리,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마무리 말씀

금융교육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도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선호,

차입을 활용한 무리한 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교육은

투자만을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되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권,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